

-고려인·중앙아시아지역 전북문화 이해증진사업 - 우즈베키스탄 「소리와 색으로 만나는 전북」 출장결과보고

I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25. 9. 23.(화)~26.(금)
- 출 장 지 :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
- 출 장 자 : 국제진흥팀 조하나 팀장, 오효정 주임
※ 도 : 백경태 국장, 장은숙 팀장, 박은지 주무관 동행
- 참여인원 : 총 850여 명(고려인, 현지인 등)
- 주요내용
 - ① 현지인 및 고려인 대회 전통문화 체험 2회, 공연 2회, 국악교실 1회
 - ② 현지인 대상 전북 유학 설명회
 - ③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국경일 리셉션 공연 1회
 - ④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 면담 등

II 주요내용

① 전북 소개 및 대학 설명회

- 일 시 : 9. 24.(수) 13:30~14:00 / 15:30~16:00
- 참여자 : 400여 명
- 주요내용
 -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상영 및 소개·홍보
 - 전북 대학 특징별 소개 및 유학 안내
 - 지역 특화형 비자 등 전북 방문, 거주 등 관련 사항 안내

② 고려인 및 현지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, 공연 및 국악교실

- 일 시 : 9. 24.(수) 14:00~15:30 / 16:00~17:30
- 장 소 :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3층 강당

- 참여자 : 고려인, 현지인 등 400여 명
- 주요내용
 - 전북의 '한지' 소개 및 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진행
 - 전주 판소리 합창단의 정통 판소리, 아리랑 등 공연 시행
 - 단소와 아리랑 배우기 국악교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

③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국경일 리셉션 공연

- 일 시 : 9. 25.(목) 19:00~21:00
- 장 소 : 고려인 한국 문화예술의 집
- 참여자 : 450여 명
- 주요내용
 - 우즈베키스탄의 총리, 장·차관 및 오피니언 리더, 고려인 등이 참여한 대사관의 가장 큰 연례행사에 전주 판소리 합창단이 참여
 - 공연 시작 전 도 국장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직접 공연단을 소개 하면서 전북이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임을 알림
 - 아리랑을 비롯하여 전통 판소리와 대금 연주 등을 선보였으며, 우즈베키스탄의 민요를 선창하면서 참여자들의 큰 호응
 - 고려인 참여자 중 한 명은 K-pop등을 제외하고 정통적인 문화 공연은 3년 만에 처음,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의견전달

④ 우즈베키스탄-한국 친선협회 간담

- 일 시 : 9. 25.(목) 15:00~16:00
- 장 소 : 친선협회 인근 커피숍
- 면담자 : 우즈베키스탄-한국 친선협회 박세르게이 전무이사
- 주요내용
 - 협회는 한국과 우즈베크를 연결하는 역할과 더불어 현지 한국문화, 수출입 프로그램 알선, K-pop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고 있음
 - 현재 우즈베크 정부 지시로 한-우즈베크 자매·우호 협정 체결을 정리하고, 협정체결 후 후속 조치가 없는 이유 등을 조사 중

- K-pop 페스티벌을 현재 3년째 운영 중에 있으며,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, 인기가 있음
- 문화, 전시, 기업 관련 양국 관련 모든 프로그램에 협력 및 희망
- 박세르게이 전무이사가 소주민족위원회(국가기관)의 자매결연 도시 회장직을 맡고 있어, 정부쪽 연결도 가능

⑤ 타슈켄트 세종학당 방문 및 학당장 간담

- 일 시 : 9. 26.(금) 11:00~12:00
- 장 소 : 타슈켄트 세종학당
- 면담자 : 허선행 학당장
- 주요내용
 - 타슈켄트 세종학당은 1991년 6월 한국어학교로 설립, 2011년 8월 부터 세종학당으로 지정, 운영 중. 운영 주체는 순천향대학교
 - 세종학당 재단 파견교사 5인, 현지교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년에 1,500명 이상이 정규과정 수강 중
 - 한국어뿐만 아니라, 문화축제, 체육대회, 한식요리 강좌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 중
 - 경기도 건립 지원 2층 건물을 비롯하여 총 3동의 건물로, 전자 칠판, 요리실 등 우수한 시설로 편안한 수업 제공
 - 방문 당일에도, 한식 요리사가 방문하여 한식 요리 교실 준비 중
 - 우수한 세종학당의 하나로 손꼽힘. 국회, 지자체 등 많은 방문단이 시찰하고 있음
 - 학당은 언제든지 협력이 가능. 전북의 많은 관심 바람

⑥ 타슈켄트 부천대 총장 간담 및 MOU 체결

- 일 시 : 9. 24.(수) 15:00~16:00 / 16:30~17:00
- 장 소 : 타슈켄트 부천대학교 총장실 및 강당
- 면담자 : 신아그리피나 총장, 송유진 부총장, 선진 교수, 김로자

국제교류담당 부서 부원장, 김아나톨리 고려인경제인협회장,
오만호 전북청년경제인협회장

※ 3자 MOU 체결(고려인경제인협회-전북청년경제인협회-타슈켄트 부천대학교)

○ 간담 주요내용

- 상호 인사 및 소개
- 고려인 전북문화 이해증진 사업의 취지 및 내용 소개

※ 9.24.(수) 오전 중 한지공예 및 판소리 공연 행사에 대한 감사 인사(총장→도)

- 타슈켄트 부천대학교의 교육, 문화 교류 현황 및 협력 관련 의견 청취

○ 의의

- 향후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와의 공식 교류 확대를 위한 교두보 마련 및 전북문화 홍보 및 해외 인재 유치 거점으로서 현지 대학 자원 활용 가능성 확보

IV 사업평가

□ 주요성과

- (우즈베키스탄 지역 최초 전북 프로그램 진행) 러시아, 카자흐스탄·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 전북을 알리는 프로그램 진행
 - 전북의 교육, 전통 문화,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
- (우즈베키스탄 오피니언 리더 대상 전북 홍보)
 - 대사관 국경일 리셉션에 전북의 전통 공연을 제공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면서 문화와 예술의 고장인 전북을 알리는 기회
- (현지 네트워크 확보)
 - 우즈베키스탄-한국 친선협회, 타슈켄트 세종학당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향후 전북의 우즈베키스탄 지역 조사, 우호협약 지역 모색 등 사업 확장 기반 마련

□ 문제점 및 개선사항

○ (운영환경 개선)

- 한지 청사초롱 체험 진행 시 적절한 시간과 장소 확보 필요
- 참여자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1개 장소에서 진행하다 보니, 체험을 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상황이었고, 풀이 마르는 시간 등이 필요
- 참여자가 많아서, 사전에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인력을 미리 교육을 하여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

V

관련사진



전북 소개 및 대학 설명회



부천대학교 전통문화 체험, 공연 및 국악교실



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국경일 리셉션 공연



우즈베키스탄-한국 친선협회 간담



타슈켄트 세종학당 방문 및 학당장 간담



타슈켄트 부천대 총장 간담 및 MOU 체결

VI

언론보도

연번	언론사명	주요내용	링크
1	프레스리안	타슈켄트에 올려 퍼진 '판소리와 한자의 향연'	https://www.pressian.com/pages/articles/2025092513540253143?utm_source=naver&utm_medium=search
2	머니투데이방송	전북도, 중앙아시아 문화교류확대	https://news.mtn.co.kr/news-detail/2025092513520133134
3	뉴스핌	전북, 우즈베크서 문화.경제교류	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50925000449
4	뉴스메이커	전북특별자치도, 우즈베키스탄에 올려 퍼진 '전북의 소리와 색'	http://www.newsmaker.or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69675